

# 우간다 선교사 소식

## — 2026년 5월

신학교는 방학 중, 음푸무데 초등학교는 개학했습니다. 도서관에서 함께 라면, 주먹밥, 달고나를 나누며 보낸 방학, 타학교 학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.



# 아이들과 함께, 기도제목



## 무거운 현실

7학년 여학생은 아버지의 폭언에 상처받아 도서관을 떠났고, 6남매 중 한 아이는 엄마가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생계를 잇는 가정의 자녀입니다. 몇몇 아이들은 방학 내내 '미이라(마약)' 농장에서 일했습니다.

## 소망의 발걸음

개학 첫날 30여 명이 등교했고, 약속을 지킨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. 13명이 요한복음 7개 말씀을 암송했고, 매주 책을 읽고 성경과 연계해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기억나실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🙏

— 김무열·손미정·기은·규은 선교사 가정